

지역 매아리

정읍경찰서, 실종예방교육 추진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및 실종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 아동과 차매환자, 지적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 보호자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미야 실종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양현식)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전지문등록을 통해 관련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실종예방 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다원시스 등 기업·시설방문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다원시스, 신태인시장산인회, 북부노인복지관 등 기업·시설 3개소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낙삼 의장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다원시스 본사를 방문하여 왕상록 경영지원그룹 이사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의장은 "내년에 정읍에 다원시스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감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정읍으로 이전(유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및 지역연계를 이용하여 주시고, 관련 기술 교육이 필요할 경우 전북과학대와 산학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원시스 왕상록 이사는 "다원시스는 장기계획으로 정읍을 메인 생산 공장으로 감전을 유지보수 공장으로 구상 중이니 시에서는 정읍공장의 인력수급과 거주문제를 챙겨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최 의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신태인시장산인회(이훈)과의 간담회에서 최 의장은 신태인은 소재지(신흥철물~신태인초등학교) 도로 확장 민원이 가장 많은데 집행부에 건의서를 작성, 전달하면 의회에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북부노인복지관장(유두희)과의 만남에서는 복지관의 식당과 사무실 공간이 많이 협소함에 복지관 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신축하는 것을 비교 후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따져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안전한 여름나기 대응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간부회의서 당면영농·장마철 대비 수리시설 점검 등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여름휴가철 폭염·폭우·악취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0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폭염과 폭우, 악취 대응에 총력

을 다해 안전한 여름나기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장마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등 농업용 수리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별·보리 수확, 콩 작기 심기, 모내기 등 당면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농가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 400억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방문설득 등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각 부서 소관 공모사업의 평가기준을 철저히 파악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부인을 만들 수 있도록 양질의 부인형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재난극기발달에서도 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시작하는 만큼 군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의회, 정례회 개최...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심의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총 14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에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차례 개최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세우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19고창 갯벌축제'가 행사기간 총 9만4300여명이 찾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생명의 땅 고창갯벌서 마음껏 즐겼다"

고창갯벌축제 성황리 마무리... 사흘간 9만4300여명 찾아

풍천장어잡기·보물찾기 등 온가족 체험행사로 자리매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갯벌에서 마음껏 뛰어놀다 출몰해지던 해물리만 한 그릇 딱딱 해치우는 '2019 고창갯벌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7~9일 심원면 만물갯벌체험장 일원에서 열린 '2019고창 갯벌축제'가 행사기간 총 9만4300여명이 찾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는 비바람과 폭염 등 악조건 속에서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몰리면서 온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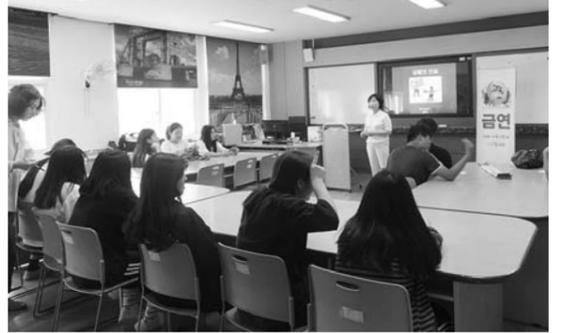
체험행사로 자리매김 했던 평가다.

올해는 축제는 수산물 특화부스가 돋보였다. 오직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김밥한상', '동죽해물리만', '장어달걀' 등 새롭게 선보인 요리들은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좋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풍천장어잡기, 갯벌 보물찾기, 염전 체험, 장어 홍보관, 아기 망풍어 방방이 운영 등 어린이들도 즐겨워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놀이프로

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 곳곳에는 차광막과 간이테이블 등이 설치 돼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초여름의 여유를 만끽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고창 갯벌은 펄 갯벌과 모래 갯벌 등이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2010년에는 람사르습지, 2013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고창갯벌축제는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신선한 식재료로 맛있는 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이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사해안 수산물 대표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금연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찾아가는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백해무익 담배, 이제 그만!

정읍시보건소,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측정 등 맞춤형 교육 진행

정읍시가 금연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찾아가는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금연교실은 금연상담사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4개교 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흡연 시기가 빠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연 성공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 1회, 총 4회 실시되는 금연교실은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술치료와 흡연

에 대한 유해성과 금연 의지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 측정, 폐활량 측정 등 개인별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의 방법 찾기가 함께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아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과 단체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상담실(☎ 539-608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GMO관련 조례제정 관심 집중

고창군이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고창군은 지난 7일 오창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창군민과 국내 GMO 관련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유전학은 물론, 농업, 생태, 자

치법을 전문가들은 고창군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조례 추진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전남 나주시와 광주시 북구가 학교급식 등에 GMO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오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진행했다"며 "농업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모두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wine bottles and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specifications.